

## 퀀트가 제시하는 잘 나갈 알짜 전략

### 바로 써 먹는 Earnings Revision #17

[Quant / Strategy]  
이상민 Quant Analyst  
smlee@barofn.com  
+822-6099-8665

#### Quant 가 액티브 매니저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본 자료는 액티브 매니저(Active Manager)들에게 일정한 Rule 을 통하여,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투자 유망 기업을 빠르게 스크리닝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스왑 자료이다. 본 자료를 통해서 필자가 제시하는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 1) 액티브 매니저들은 체계적인 규칙에 의하여 탐방 기업을 선정할 수도 있다.
- 2)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여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종목들을 동일 가중으로 편입하여, 초과수익률을 노리는 방법이 있다. 일종의 '별동대' 개념이다.
- 3) 최근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들이 특정 섹터, 특정 테마에 쏠려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변곡점' 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 4) 역발상 투자자(Contrarian)라면, 오히려 추정치 상향의 근거가 타당한지, 혹은 과도한 상향이 된 것이 아닌지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Short 의 아이디어를 잡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유니버스 선정 및 아이디어

시가총액 1 조원 이상, 60 일 평균 거래대금 50 억원 이상 종목들 중, 최근 3 개월간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제시되었으며, 2019 년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도(2018 년) 대비 증가하는 종목만을 유니버스로 하였다.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자에 나서기에 무리가 없는 유동성과 규모를 갖춘 동시에, 해당 종목을 아무런 정성적인 분석 없이 동일 가중으로 일부 편입하는 것으로도 초과수익률을 노려 볼 수 있도록 설정한 유니버스이다. 또한, 활용법 3 에서 제시한 대로 '시장의 변화' 를 읽어 내는 데에는, 대형주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팩터는 총 8 개를 사용하였다. 2018 년과 2019 년의 영업이익/지배주주 순이익 추정치의 1 개월, 3 개월 변화율이다. 8 개의 팩터를 계산하여 각 팩터의 백분위수를 구하였다. 그 후, 8 개 팩터의 백분위 수의 합이 가장 높은 20 종목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추정치가 상향되는 경향이 큰 종목을 20 개 제시하였다는 뜻이다.

#### 이번 주의 종목 List 20

이번 주에 선정된 20 종목은 다음과 같다.

호텔신라, 삼성전기, 신세계, 두산인프라코어, 키움증권, 태영건설, OCI, 솔브레인, 한국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 LG 전자, 삼성증권, 헬라코리아, 우리은행, POSCO, 하나금융지주, LS 산전, 기업은행, 삼성에스디에스, NH 투자증권

Exhibit 1. 이익 추정치가 의미있게 상향된 종목 20 선

종목명	시가총액 (억원)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율				지배주주 순이익 추정치 변화율				
		FY18 1M Chg.	FY18 3M Chg.	FY19 1M Chg.	FY19 3M Chg.	FY18 1M Chg.	FY18 3M Chg.	FY19 1M Chg.	FY19 3M Chg.	
1	호텔신라	46,313	25.07	27.03	15.77	22.42	34.26	30.53	20.52	23.37
2	삼성전기	93,741	10.52	20.30	10.82	26.49	14.10	24.24	13.55	28.56
3	신세계	43,565	14.23	15.79	14.97	19.45	18.38	19.33	17.94	21.52
4	두산인프라코어	23,208	10.72	13.26	9.57	12.18	18.25	22.53	14.07	17.26
5	키움증권	27,293	3.38	28.31	7.32	27.63	1.64	22.28	4.80	23.17
6	태영건설	11,116	17.20	9.89	9.40	5.84	14.74	7.76	10.27	12.31
7	OCI	36,251	2.36	6.09	10.09	16.91	5.58	13.00	16.87	29.41
8	솔브레인	11,396	8.41	8.57	8.06	9.06	15.79	8.38	13.52	8.17
9	한국금융지주	52,605	24.25	25.77	2.99	17.80	4.59	9.54	2.95	12.67
10	한국가스공사	56,219	3.43	4.31	3.86	5.31	27.24	31.37	14.63	15.05
11	LG전자	161,520	6.51	19.30	7.07	15.76	3.26	14.50	3.09	10.76
12	삼성증권	33,443	6.21	14.43	5.72	14.30	4.33	10.79	2.73	10.61
13	힐라코리아	16,409	3.30	8.71	5.37	11.26	4.04	17.08	4.19	14.92
14	우리은행	106,470	7.04	8.29	6.19	7.04	5.37	6.54	5.52	5.43
15	POSCO	314,744	7.68	8.62	6.26	6.58	7.53	6.77	5.02	3.27
16	하나금융지주	135,709	5.85	8.07	5.28	8.24	4.76	5.16	3.52	4.43
17	LS산전	23,340	7.62	1.40	10.05	2.85	7.94	1.67	8.62	0.82
18	기업은행	91,837	5.51	4.88	4.93	3.80	5.39	5.00	3.03	2.26
19	삼성에스디에스	172,939	2.87	2.91	2.91	3.91	4.34	4.11	4.38	4.83
20	NH투자증권	45,588	2.92	8.22	-0.33	8.20	8.01	14.39	2.49	14.87

Source: Fnguide, Baro Research Center

####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자료 작성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